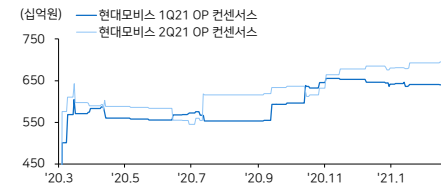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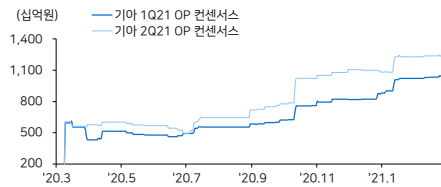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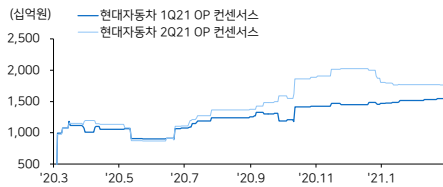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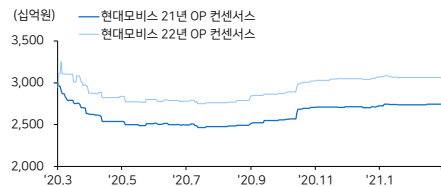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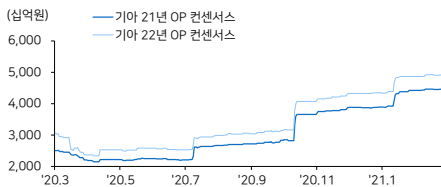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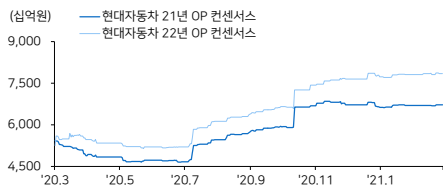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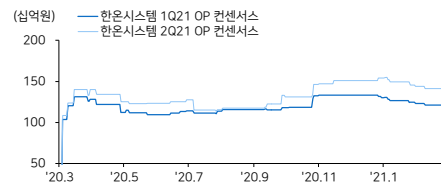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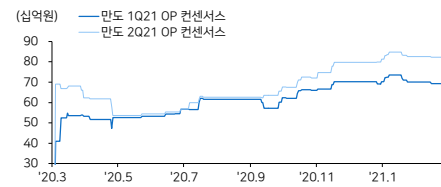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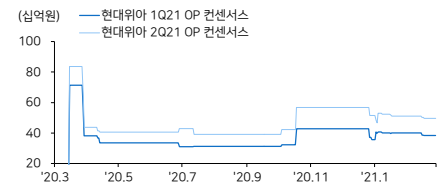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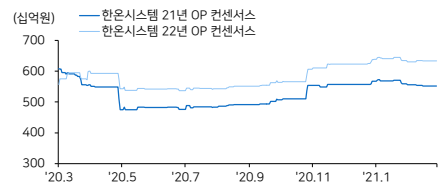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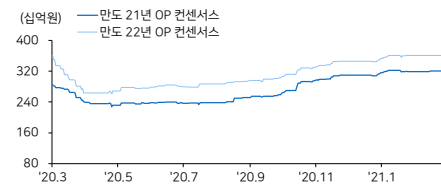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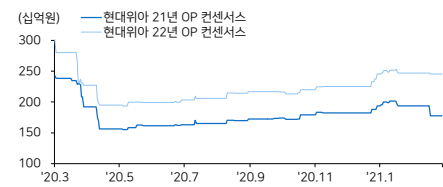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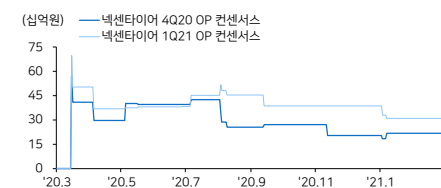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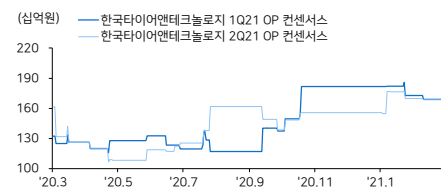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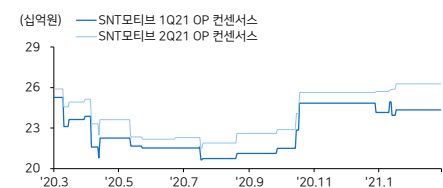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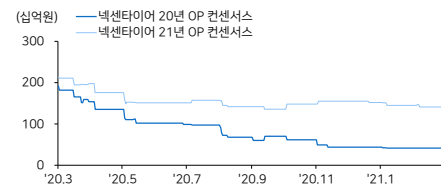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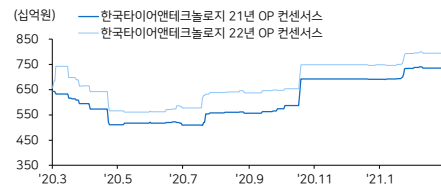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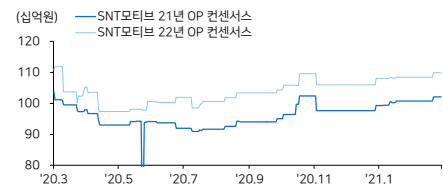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G80 · GV80 돌풍...현대차 '제네시스' 비중 사상 최대 (파이낸셜뉴스)

제네시스가 현대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제네시스의 1~2월 판매량은 1만8818대로 전년 동기대비 204% 급증했으며, 지난해 출시된 신형 G80과 첫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이 실적을 주도함.
<http://bit.ly/3tdDQw4>

기아, 전기차 구독 · 공유 결합 서비스 (e대환경제)

기아는 15일부터 화성시에 '윌비(wible BIZ)' 서비스를 제공함. 윌비 BIZ는 공공부문이나 기업이 정해진 업무시간 동안 전차를 유자하는 등 자가 차량, 자율주행, 드론 같은 미래 스마트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겨냥하는 중.
<http://bit.ly/30tHhP9>

플라잉카부터 햅택스까지...스마트 모빌리티 영토 전쟁 (매일경제)

티엠모빌리티와 우버코리아는 다음달 1일 합작법인(JV) '우티(UT)'를 출범시킬 예정이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가 차량, 자율주행, 드론 같은 미래 스마트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겨냥하는 중.
<http://bit.ly/38EdFkh>

브라질 코스트에 떠나는 자동차 업체들...韓기업은? (THE GURU)

포드,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브라질에서 철수하는 중. 과도한 세금 부담과 열악한 인프라, 기업에 불리한 노동법 등의 '브라질 코스트'로 인해 해외기업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모습.
<http://bit.ly/3vnMrOP>

현대차 호주 수소사업 탄력...파트너사 FMG 수소공장 설립 (THE GURU)

현대자동차가 호주에서 진행 중인 수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차와 수소 추출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파트너사 'FMG'가 현지에서 그린수소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며, 환경 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린수소 발전소로 탄생.
<http://bit.ly/20v3Uuu>

기아, 멕시코 택시 어플 '디디'와 협업...브랜드 이미지 'UP' (THE GURU)

기아가 자사 모델을 중국판 우버인 디디(DiDi)를 영업에 사용하는 멕시코 운전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섬. 이를 위해 디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홍보 효과도 기대됨.
<http://bit.ly/3ld23A4>

글로벌 후疫情, 친환경 경영 '불꽃경쟁' (디지털타임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ESG 채권을 발행한 가운데 일본 도요타도 이달 5조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하며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붙임.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ESG 채권 발행에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http://bit.ly/30KqMcc>

중, 전기차 시장의 각축장...승자는? (아이뉴스24)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전기차 부문에서도 머지 않아 유럽을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 시장은 테슬라, 니오, 샤오미, 닝산과 PSA 루초의 중국 합작사인 동평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
<http://bit.ly/3bN06qV>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